

9/10/23

설교 제목: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4 장 17-32 절

옛 사람과 새 사람

(엡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엡 4: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엡 4: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엡 4: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엡 4: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엡 4:25)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엡 4: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엡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 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엡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전문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며 그 삶이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뀔 때 삶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했으며, 철학 문화 예술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 상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이곳 유대인 회당에 들러 유대인들과 변론했으나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찾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2년간 장기 체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후에는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복음을 듣고 많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뀐 그들이기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피력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엡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허망’의 헬라어 ‘마타이오테티’는 텅빔, 공허, 무익, 무가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쓸모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엡 4: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무지함은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무지를 뜻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음으로 인한 영적 무지의 결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부도덕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엡 4: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헬라어 '아펠게코테스'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러운 것' 헬라어 '아카다르시아스'는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는 단어로 여기서는 모든 부도덕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진리에 대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엡 4: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엡 4: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들을 총칭하며 육적인 본성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세력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죄로 물든 생활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결말은 죽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미 이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재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엡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당신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켰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의 윤리적인 덕목이며 자질입니다.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게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 덕목은 모두 '진리'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만든 자아인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의 원리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궤계를 말합니다.

옛 사람은 성도 하나 하나가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서로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서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실함으로 참된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분을 내어도 그것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엡 4: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엡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도 의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을 품을 경우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을 품게 되면 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는 교활해서 아주 작은 틈도 알아차리고 교묘하게 파고 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이라는 시간 제한을 둡니다.

셋째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엡 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로 십계명 중 제 7 계명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사소한 도둑질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의 목적이 부의 축적에 있지 아니하고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은 '부패한, 썩은, 쓸모없는' 이라는 뜻으로, '더러운 말'은 악의 있는 험담과 증상 모략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건설하고 옳은 말입니다.

선한 말은 교회에 덕을 세우며 타인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다섯 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개역 성경에 '카이'(그리고,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더러운 말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소유자 되심을 표시하는 보증의 표입니다.

'구원의 날'은 주의 날,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성도의 일시적인 범죄로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성도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섯 째, 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엡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엡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하신 것이 성도의 행동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은 나 자신이 만든 자아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결국 허망한 것입니다.

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옛 사람의 모습과 성령의 뜻을 이루려는 새 사람의 모습이 서로 대립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아가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아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